

도내 학생에 '전북에듀페이' 지급

전북자치도교육청, 공공성 강화 등 통해 도내 학부모 부담 경감·학령인구 감소 대응 초1~고3 학생 입학지원금 등 지급... 9~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모든 학생에게 전북에듀페이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8만2,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총 350여억원이 투입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다. 이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학생별 필요에 맞게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로 지급된다.

먼저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해당학년과정)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며 기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

하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이어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등학교 2~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진로지원비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5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이다.

특히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서

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와 공연 관람 등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문화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학교에서 학습을 중단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연령(16~18세)에게만 지급했던 학습지원비를 올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등록한 9~18세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초·중학교 연령(9~15세)은 월 5만원, 고등학교 연령(16~18세)은 월 1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자치도교육청은 3월 새학기 시

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고, 입학지원금은 3월 중, 학습 및 진로지원비는 4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내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 밖청소년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학지원금은 학부모 신청 계좌로 입금(현금)하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별도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야 지급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가 전면 시행되는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체계를 마련했다"며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배움의 권리를 누리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 미래사회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4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퇴직교원에 포상을 전수하고 있다.

“전북교육의 든든한 멘토 돼 주길”

전북자치도교육청,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황조근정훈장 22명·홍조근정훈장 19명 등 총 95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4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95명이다. 이들은 2월 말 정년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도내 유·초·중 등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공직생활을 훌륭히 마무리한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교장 박강덕 외 21명

△홍조근정훈장에 신희중학교 교사 김용환 외 18명 △녹조근정훈장에 전주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남궁영숙 외 27명 △육조근정훈장에 이리북일초등학교 교사 윤효영 외 18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퇴직교원들은 30년 이상의 공직생활동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사에 흠결이 없어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면서 "교육현장을 떠나더라도 교육계의 원로로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기우는 전북교육의 든든한 멘토가 돼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우리 함께 초록 더하기’

전북자치도교육청,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 개발·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환경교육 자료인 '우리 함께 초록 더하기'를 개발, 각급 학교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개발한 '우리 함께 초록 더하기'는 온라인 학습 및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이 용이하도록 제작했다.

특히 웹기반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형태로 개발해 기존 서책형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풍부한 사진·영상 등의 콘텐츠를 포함해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원 구성은 문제를 인식하고 생각해 보는 '알아보기'와 '알아보기', 우리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체험하기', 관련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탐색' 등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제1장 우리 손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2장 어떻게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제3장 환경을 지키는 착한 에너지가 존재할까? △제4장 동식물이 함께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환경교육 지원 자료에 담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은 학교·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오늘까지 전북미래학교

학교장 역량 강화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28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전북미래학교 학교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28명의 초·중·고 전북미래학교교장이 참여해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장의 지원 방안과 리더십을 공유한다.

특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 견학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또 전북미래학교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교장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방문 및 연수를 통해 세계적 기업의 문화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교 경영에도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리크루트 채널의 성공적 운영과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광주 힐튼호텔에서 전국 7개 대학과 공동으로 6개 권역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취업 연계 '리크루트 채널 협의체' 출범

우석대 LINC 3.0 사업단, 경성대 등 전국 7개 대학과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리크루트 채널의 성공적 운영과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7개 대학과 공동으로 6개 권역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광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리크루트 채널(Recruit Channel) 협의체 출범 행사에는 우석대학교를 포함해 경성대·경일대·부산여대·선문대·세종대·제주관광대·한라대 등 총 8개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리크루트 채널은 학생-기업 간 심층 공개 면접 과정을 통해 취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협업 기반의 취업 연계 프로젝트다.

참여 학생들은 사전 서류 심사와 온라인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수강한 후 스피치 및 면접 멘토링, 자기소개서 작성 등 면접에 도움 되는 조언과 팁을 제공받는다.

우수 학생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부산광역시장상, 총장상 등의 영예가 주어진다.

협의체 부회장을 맡은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은 "리크루트 채널은 대학과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자체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매년 실적 향상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지역 육성을 위한 권역 간 공유협업은 필수 불가결하며, 지·산·학 협력 기반의 대표적 일자리 매칭 채널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초등 총괄평가, 일제식 평가 아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전교조 전북지부 주장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2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초등 총괄평가 시행"과 관련한 전교조 전북지부의 일제식 기말평가 부활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평가는 시기에 따라 진단평가·형성평가·총괄평가로 운영되는 데 수업 중간중간 학습 내용을 부분적으로 평가하는 형성평가만으로는 교과별 학습목표 도달도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교과가 끝난 후 교과별 학습목표 도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괄평가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총괄평가를 학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괄평가는 학교 단위로 운영되며,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기반해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가르친 내용에 기반해 직접 문항을 출제하고, 이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도교육청 수준의 일제식 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과거 기말평가가 교과별 점수만 제공하고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등 결과 중심의 평가라면, 이번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총괄평가는 교과별 점수와 등수를 제공하지 않고 진단·형성·총괄평가로 연계되는 학생평가의

한 과정으로 학기 말에 학생들의 학습 목표 도달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 개인별(교과별) 피드백 제공 및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기말고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총괄평가 시행에 따른 교사의 업무가 증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항 출제·검토, 결재, 채점, 통지표 작성 등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라고 했다.

그럼에도 교사들의 평가 관련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별 평가 지원단을 구성해 총괄평가를 포함한 초등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학생평가 전문가 모임을 구성해 초등 4~6학년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평가문항을 개발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지원 △학생평가 플랫폼을 구축해 초등 학생평가 전문가들이 개발한 문항을 탑재해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단위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 중 전문가 검토 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맞춤형 학습성취도 자율평가 시행은 국가에서 지정한 책임교육학년인 초등 3학년 학생의 많은 참여를 위해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기초·기본학력 사업 예산은 정확한 진단 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상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28일 이틀간 교직원수련원에서 상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예산업무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예산편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해 △맞춤형 예산관리시스템(LIBS) 사용법 안내 △특별교부금 운용 요령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이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의 이해 등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상근 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6일 전북대학교에서 양오봉 총장과 오혁재 35보병사단 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병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35사단 장병들에 교육서비스 제공

전북대, 35보병사단과 협약... SW·AI·창업교육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육군 제35보병사단(사단장 오혁재) 장병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6일 양오봉 총장과 오혁재 사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와 제35보병사단은 지역 내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소프트웨어(SW)와 AI 교육을 비

롯해 현역 장병 및 재대(예정) 군인을 위한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글로벌 대학 30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학협력 분야의 혁신을 위해 새만금 지역에 K-방위산업 분야 육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군이 지역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방 관련 연구개발·인력 교류

전주대, 국방대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6일 본관 4층 접견실에서 국방대학교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노명화 원장과 국방과학연구소 조영호 부교수가 전주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전주대학교 이해원 산학부총장과 김영수 국방산업연구소장 등 실무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국방 관련 연구개발 및 협력, 인력 교류 등이다.

노명화 원장은 "양 기관은 새만금 지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인 국방산업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에 이해원 산학부총장은 "양교 협력을 강화해 국방 관련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우수 등 공동 협력으로 국방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국방산업연구소는 방위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술 연구, 과제 발굴 및 우수 그리고 인력양성을 위해 2023년 9월 본교 내 부설연구소로 설치됐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